제8호 · 2026. 11. 23.

전파·통신 국내외 동향

위성 주파수 배분과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 분담

2026년 11월 셋째 주 (11. 16. – 11. 22.)

이번 호의 숫자

24년
한국, ITU 전파규칙위원회(RRB) 24년 만에 복귀
01 · ITU

50MW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안)
02 · 전력

15+15
브라질, SpaceX·AST 각각 허가한 2GHz 대역폭(MHz)
03 · 위성

49건
수능 위급재난문자 3회로 적발된 전자기기 소지
05 · 전파

ITU	한국, RRB 24년 만에 복귀 — 미국, WRC-27 입장 표명: "D2D는 2차 업무"	02
전력	데이터센터 전력 — 한국의 입지 심사 절차 마련과 미국의 전력망 비용 배분 수정	03
위성	2GHz MSS — 브라질은 SpaceX·AST에 허가, 유럽은 역내 사업자 우선 배분 논의	04
미디어	KT스카이라이프의 HCN 흡수합병 추진과 CJ ENM의 채널 송출 중단 금지 가처분	05
전파	수능 시험장의 와이파이 운영 중단과 미국 교도소의 밀반입 휴대전화 전파 차단 허용	06
기타	국내외 소식 17건 · 다가오는 일정	07

디지털미래연구소 Digital Future Institute
dfi.re.kr

이순환
soonlee@dfi.re.kr

국내 미국 ITU 도하

선거 결과(11. 16. 확정) · 미국 입장 발표(11. 19.–20., 지역회의 제출 전) · CITEL 회의(11. 30. 예정)

2026. 11. 16. – 22.

한국, 전파규칙위원회에 24년 만에 복귀 — 미국, WRC-27 입장 표명: "D2D는 2차 업무"

ITU 전권회의(PP-26)에서 한국 후보 박종민이 전파규칙위원회(RRB) 위원에 당선됐다.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이사국은 10회 연속 연임했다. 같은 주 미국은 WRC-27 주요 의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11월 30일 미주 지역회의(CITEL)에 내는 미국안이며, 최종 제안은 지역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위성 직결통신(D2D)은 이동통신 대역의 '2차 업무'로 허용하되, 지상 이동통신 대역에 위성용 분배를 새로 두는 데는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선거 결과 — 11. 16. 확정

- **RRB(12명)**: 아·태 몫 3석에 한국 박종민(136표)·중국 청젠쥔·사우디 알카타니. 미주는 미국 워런·브라질 리냐레스(연임). 임기 2027~2030년
- **이사국**: 아·태 지역 13석에 15개국 출마, 한국은 144표로 공동 9위에 들어 당선. 임기 2027~2030년
- **국장급(11. 12.–13.)**: 사무총장 보그단-마틴 재선(164표), BR 국장 에릭 푸르니에(프랑스), 표준화국장 오노에(일본) 연임
- RRB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다. 정부 대표가 아니다. 위성망 등록 기한·운용 개시(BIU)·간섭 분쟁에서 전파규칙 해석을 맡는다

미국 WRC-27 입장 — 11. 19. NTIA, 11. 20. 세부

- **의제 1.13**(이동통신 대역에서 위성 D2D를 2차 업무로 허용): **지지**
- **의제 1.14**(지상 이동통신이 많이 쓰는 대역에 MSS 1차 분배): **반대**
- **의제 9·10**: FCC가 2026년 4월 개정한 EPFD 규칙(등가전력속밀도, 비정지궤도 위성이 정지궤도 위성에 줄 수 있는 간섭 한도)을 본떠 정지궤도–비정지궤도 간 공유 규칙을 주요 대역에 잠정 적용, 장기 개혁은 뒤로
- NGSO 신규 대역, 달 표면 통신, 6G 초기 제안 포함. 11. 30. 보고타 CITEL PCC.II부터 미주 설득

같은 주의 관련 움직임

- **중국 MIIT(11. 17.)**: 베이징·상하이·광둥 등 8개 성·시를 6G 시범지역으로 승인. 상용 전 통신사업 허가 취득·전파 규정 준수 조건. 승인문에 주파수 대역은 명시되지 않음. 중국은 2023년 6GHz 대역(6,425–7,125MHz) 전체를 IMT용으로 지정해 둔 상태
- **인도 합참의장(11. 16.)**: "전쟁에서 외국 위성망에 의존할 수 없다". Reliance Jio는 위성 1,600기 군집 제조사 물색(11. 19.)

국내에서 확인할 점

- 12월 목표인 국내 저궤도 위성망 ITU 신청 뒤 **등록 기한·BIU 마일스톤** 관리. RRB가 바로 이 규칙을 해석한다
- APG27(아·태전기통신협의체 APT의 WRC-27 준비회의) 공동 입장에서 D2D를 **2차 업무**로 둘지(미국안), 별도 MSS 분배를 지지할지
- 미국의 EPFD 완화 제안이 국내 정지궤도 위성(무궁화·천리안) 보호에 미치는 영향

표 1. WRC-27 주요 의제와 미국 입장, 국내 쟁점

의제	내용	미국 입장	국내 쟁점
1.13	이동통신 대역에서 위성 D2D(2차 업무)	지지	D2D 대역·조건 미정, 간섭 보호 순위
1.14	지상 이동통신 대역에 MSS 1차 분배	반대	2GHz MSS 대역 재할당(04면)
9·10	GSO–NGSO 공유(EPFD) 규칙 개정	FCC 규칙 잠정 적용 제안	정지궤도 위성 보호 수준

평가

RRB 위원은 개인 자격이므로 한국 정부가 규칙 해석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위성 신청 심사와 간섭 분쟁의 **규칙 해석 단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한국인 전문가가 24년 만에 생겼다. 국내 저궤도 위성망은 12월 ITU 신청 뒤 등록 기한과 BIU 마일스톤을 지켜야 하는데, 이 조건의 적용을 결정하는 곳이 RRB다. Amazon Leo가 발사체 때문에 배치 기한에 쫓기는 상황(04면)은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안은 '지상망 우선, 위성은 2차'로 보인다. 동시에 EPFD 완화로 비정지궤도 위성의 운용 여지는 넓히려 한다. 한국은 두 가지를 따로 답해야 한다. D2D에서는 국내 이통사 주파수를 보호하는 미국안이 유리할 수 있지만, EPFD에서는 정지궤도 위성 보호가 걸린다. APG27 입장을 정할 때 **의제별로 이해관계를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먼저다.

출처: 과기정통부·korea.kr(2026.11.16) RRB·이사국 선거 · 전자신문(11.16) · SatellitePro ME(11.16) RRB 명단 · ITU(11.12–13) 국장급 선거 · NTIA 보도자료(11.19) WRC-27 입장 · Broadband Breakfast(11.20) 의제 1.13·1.14 · C114(11.17) MIIT 6G 시범 · MediaNama(11.18) 인도 CDS

국내 미국 스페인 · 태국 · 말레이시아

시행령 입법예고(11. 20., 의견 ~12. 30.) · 상원 본회의 통과(11. 19., 하원 대기) · 왕령 의결 · 인허가 중단

2026. 11. 16. – 22.

데이터센터 전력 — 한국의 입지 심사 절차 마련과 미국의 전력망 비용 배분 수정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수도권의 계약전력 50MW 이하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의견 마감은 12월 30일, 시행은 2027년 3월 10일이다. 같은 주 미국 상원은 인허가 간소화 법안(BAAJA, S.5653 대체수정안)을 62:33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호에서 절차 표결(73:25)로 다룬 법안이다. 데이터센터 등 연산 부하 시설의 송전 비용을 다른 요금 납부자가 떠안지 않도록 FERC가 90일 안에 정책을 세우라는 조항이 들어 있다. 초안의 20MW 기준은 대체수정안에서 삭제돼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하원 심의가 남았다.

한국 — AIDC 하위법령 입법예고(11. 20.)

- **평가 면제**: 비수도권 신축·증축·전환 AIDC 중 계약전력 50MW 이하. 부처 간 이견(100MW vs 50MW)은 50MW·비수도권 한정으로 정리. 전력 여건: 한전 부채 209.6조 원, 전기요금 14분기 연속 동결
- **패스트트랙**: 메가프로젝트·일괄처리 대상은 계통영향평가 우선 실시. 특구 안은 비기술적 평가 항목 면제
- **인정 기준**: AI 가속기 일정 규모 이상 보유, 설계전력비율 1.5 이하, 코로케이션 포함. 신고는 구축·운영·변경 3단계
- **일정**: 공청회 12. 9., 의견 12. 30., 지역상생 가이드라인 2027년 상반기
- **비용 분담**: 해설자료는 평가 절차·면제만 다루고 계통 증설 비용 부담은 언급하지 않음

해외 — 부담 원칙과 입지 제한

- **美 상원 BAAJA(11. 19., 62:33)**: FERC가 90일 안에 연산 부하 시설의 송전 비용을 해당 시설에 전부 배분하는 정책 수립. 초안의 **20MW 기준은 삭제**(White & Case). '통신·방송 서비스가 주된 데이터센터' 제외는 11. 19. 제출된 수정 제안(Briefs), 통과 여부 미확인. 유선 광대역 일부 NEPA 면제. 하원 미처리
- **美 주민 수용성**: 11. 3. 지역 주민투표에서 데이터센터 사업 41건 중 40건 부결. 전력 수요는 연 19%, 계통 용량은 연 2% 증가(Howden)
- **스페인 왕령(11. 20.)**: 10MW 초과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60%→2032년 80%를 충족해야 계통 접속. 위반 시 접속권 최대 3년 정지
- **태국·말레이시아**: 태국은 데이터센터 사업 166건을 9. 4. 일시 중단.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싱가포르 인접 데이터센터 집적지)는 물 사용량이 많은 대형 시설(주 자체 분류 Tier 1·2)의 신규 승인 중단

표 2. 데이터센터 전력 규율 — 무엇을 규율하나, 어느 단계인가

주체	규율 대상	내용	단계
한국	입지 심사	비수도권 50MW 이하 AIDC는 계통영향평가 면제. 수도권은 75점 이상(11. 16. 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12. 30.
미국(연방)	송전 비용 배분	연산 부하 시설이 송전 비용 전부 부담(FERC 정책, 규모 무관)	상원 통과, 하원 대기
스페인	계통 접속 조건	10MW 초과 시 재생에너지 80%(2032) 충족해야 접속	왕령 의결, 업계 소송 예고
태국·조호르주	인허가	신규 승인 일시 중단	시행 중

평가

한국과 미국은 같은 전력 문제를 다른 곳에서 풀고 있다. 한국의 시행령안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때 거치는 **심사 절차**를 손본다. 비수도권 50MW 이하 시설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심사를 앞당겨 지방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상원 통과 법안은 **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데이터센터 수요로 늘어난 전력망 비용을 다른 전기 이용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심사를 면제한다고 송전망 증설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국내에서도 풀어야 할 문제다.

미국에서는 통신·방송 서비스가 주된 시설을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수정 제안도 나왔다. 국내 통신사의 IDC와 엣지 설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한전의 부채가 크고 전기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비용 분담은 미룰 수 없는 질문이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어떤 시설에 심사 특례를 줄지, 그리고 그 시설 때문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 비용은 누가 낼지**를 구분해 물어야 한다.

브라질 EU 미국 국내 비교

관보 허가(11. 19., 확정) · 의회 상임위 표결(11. 20., 본회의·이사회 협상 전) · 발사 결과·예정 2026. 11. 16. – 23.

2GHz MSS, 누구에게 주나 — 브라질은 SpaceX·AST에 허가, 유럽은 역내 사업자 우선 배분 논의

위성 직결통신(D2D)의 핵심 대역인 2GHz MSS를 두고 대서양 양쪽에서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나왔다. 브라질 Anatel은 SpaceX(11. 19. 관보)와 AST SpaceMobile(11. 17. 관보)에 각각 15+15MHz를 허가했다. 다만 D2D 서비스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동위성업무 규정이 마련된 뒤에 가능하다.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같은 대역의 대부분을 유럽 사업자에 유보하는 집행위 안을 지지했다. 입법은 본회의와 이사회 협상이 남아 있다. 한편 Amazon은 Vulcan 발사 실패(11. 15.) 뒤 Ariane 6로 위성 36기 발사를 11월 23일 이후로 잡아 두고 있다.

브라질 — 글로벌 사업자에 개방

- **SpaceX(Ato 14.181, 11. 19. 관보)**: 2GHz 15+15MHz = 10+10MHz(2038. 2.까지) + 5+5MHz(2029. 6.까지), 위성 최대 7,500기. Starlink 기존 허가에 Ku/Ka/Q-V 9개 부대역 추가(상한 11,908기 유지)
- **AST SpaceMobile(Ato 14.140, 11. 17. 관보)**: 2GHz 15+15MHz = 10+10MHz(2032. 10.까지) + 5+5MHz(2029. 6.까지), 위성 최대 248기
- 두 허가 모두 D2D 제공은 관련 규정 마련 뒤 별도 허가 필요(DPL News)

유럽 — 역내 사업자에 유보

- **유럽의회 ITRE(11. 20.)**: 집행위의 2GHz MSS 단일 허가 규정안(2026. 5. 발의) 지지. 대역 대부분을 유럽 사업자에 유보. 본회의·이사회 절차 남음. 기존 면허 2027. 5. 만료
- **獨 BNetzA(11. 19.)**: 1GHz 이하 저대역 기존 3사 우선 배정 확정. 4위 1&1, EU 집행위에 국가보조 심사 요청

미국 — 지상 면허 매입, 그리고 발사체

- **머스크(11. 18. 발언)**: Starlink Mobile 실내용 **옥상 마이크로셀** 계획. 2세대 D2C 위성 2027년 발사, Grain Management에서 인수 추진 중인 800MHz 지상 면허(FCC 심사 중, 의견 12. 1.) 사용
- **Vulcan 실패 후속**: ULA 비행 중단. Amazon Leo 배치 398기(필요 3,236기의 약 12%), 2026년 서비스 개시 어려워졌다는 평가. Ariane 6 36기 발사는 11. 23. 이후 예정

표 3. 2GHz MSS 대역을 누구에게 — 국가별 결정과 단계

국가	결정	대상	단계
브라질	SpaceX·AST에 각 15+15MHz(10+10은 2038·2032년, 5+5는 2029년까지)	글로벌 NGSO 사업자 2곳	관보 고시(확정), D2D는 별도 허가
EU	대역 대부분 유럽 사업자에 유보	역내 사업자, 단일 허가	ITRE 지지, 본회의 전
한국	2GHz MSS 대역 정책·D2D 사업자 요건 미정	—	저궤도망 ITU 신청 12월 목표

평가

지난 3주간은 위성과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D2D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살펴봤다. 정부 지원, 지상망 매입, 이동통신사 공동 부담이 그 선택지였다. 이번 주에는 한 단계 앞선 질문이 드러났다. **어떤 사업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파수 이용권을 줄 것인가.** 브라질은 스타링크와 AST 스페이스모바일에 2GHz 대역 이용을 허가했다. 해당 대역에서 D2D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EU는 2GHz 대역 일부를 역내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독일 사례는 또 다른 쟁점을 보여준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저대역 이용권이 연장되고 후발 사업자 1&1의 접근이 제한되자, 1&1은 EU 집행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세 사례를 함께 보면 주파수 배분에는 두 가지 판단이 따른다. 외국 사업자에게 어디까지 문을 열지, 기존 사업자의 이용권을 인정하면서 후발 사업자의 진입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다.

국내에서는 2GHz 이동위성업무(MSS) 대역의 활용 방향이 아직 열려 있다. 미국이 WRC-27에서 추진하는 방안처럼 지상 이동통신 대역에서 위성이 2차 업무로 D2D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02면), 위성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할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만큼 2GHz MSS 대역을 직접 확보하는 전략의 상대적 가치도 달라진다. 국내 정책은 스타링크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진입을 상정해 **MSS 대역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와 국내 이동통신사의 대역을 제휴로 이용하는 경우를 나눠**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각 경우에 주파수 지정과 국경 간 공급 승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내 사업자 참여를 조건으로 둘지 정하는 것이다. EU의 현행 2GHz 이용권이 만료되는 2027년 5월은 국내 기준안을 마련할 시점으로 삼을 만하다.

출처: Anatel Ato 14.179·14.181(관보 2026.11.19)·Ato 14.140(관보 11.17)·DPL News(11.20)·TELETIME(11.19) · Policy Tracker(11.20) ITRE 표결 · EU 집행위(2026.05) 2GHz MSS 제안 · Telecompaper(11.20) BNetzA·1&1 · Inside Towers(11.20) 머스크 마이크로셀 · Broadband Breakfast·DPL News·Advanced Television(11.16–19) Vulcan 후속

국내 영국 · 네덜란드 이사회 결정·공시(11. 19.) · 가처분 신청(11. 20., 결정 전) · 송출 중단 예정(11. 26.)

2026. 11. 16. – 22.

KT스카이라이프의 HCN 흡수합병 추진과 CJ ENM의 채널 송출 중단 금지 가처분

KT스카이라이프가 자회사 KT HCN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합병기일은 2027년 6월 30일이고, 정부 인가·신고 절차가 남았다. 완료되면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한 법인이 운영한다. 같은 주 CJ ENM은 LG헬로비전을 상대로 채널 송출 중단 금지 가처분을 냈다. LG헬로비전은 11월 26일 4개 채널 송출을 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2021년 가이드라인의 '선계약 후공급' 원칙은 5년째 시행 시점이 없다.

합병 — 방송법 분리 체계의 시험

- **KT스카이라이프(11. 19. 이사회·공시)**: 100% 자회사 KT HCN을 1:0 무증자 합병. 합병기일 2027. 6. 30. 지역(케이블)·전국(위성) 영업망 연계, 콜센터·전산 통합
- 필요한 절차: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또는 신고 수리), 방미통위의 합병 신고 수리. 소규모 합병이라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주식매수청구권 없음.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한 법인이 운영하게 됨
- 노조는 반대. "HCN 인수(2021년, 5,151억 원) 시너지 부진 원인을 먼저 따져야" 2025년 말 장부가 2,348억 원. 업계는 KT 미디어 계열사 추가 조정도 관측(확인된 계획은 아님)
- 3분기 영업이익 156억 원(−5.5%), 순이익은 ENA 채널 매각으로 +69.2%

해외 — 유선 자산 재편

- **Liberty Global**: VodafoneZiggo+Telenet 지주사 'Ziggo Group' 2027년 5월 상장 목표
- **英 CMA**: nexfibre–Netomnia 통합 최종 결정 12. 15. CityFibre 반대. TalkTalk 부채 20억 파운드

송출 중단 — 법원으로 간 채널 분쟁

- **CJ ENM(11. 20.)**: 서울서부지법에 tvN SPORTS·tvN SHOW·중화TV·투니버스 송출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 **LG헬로비전(11. 21.)**: "26일 종료 입장 불변", 방미통위 조정에는 참여. **딜라이브**도 CJ ENM 4개 채널 송출 종료 추진(제7호)
- **제도**: 2021. 12. 가이드라인에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넣었으나 대가 산정 기준이 없어 시행 유예. 2024. 4. 출범한 산정기준 검토위원회는 합의 없이 중단. 업무는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8월 민관협의체)
- 방미통위는 연내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정. 기준과 일정이 담기는지가 관건

함께 볼 것

- 방미통위, 방송미디어 AI 전환 세미나(11. 17.): 101개 사업자 중 88%가 AI를 써 봤으나 대표 업무 활용률 평균 31%, 지역방송 26%

표 4. 두 사안의 인허가·분쟁 절차와 시점

사안	필요한 절차	다음 시점	제도 쟁점
스카이라이프–HCN 합병	과기정통부 합병 인가·신고, 방미통위 합병 신고 수리	합병기일 2027. 6. 30.	위성·케이블 겸영, 점유율 규제 적용
CJ ENM–LG헬로비전	법원 가처분, 방미통위 방송분쟁조정	송출 중단 예정 11. 26.	선계약 후공급 시행 시점, 대가 산정 기준
통합미디어법	국회 심의	미정	플랫폼 규제 일원화, 채널 거래 규율

평가

두 사안은 위성·케이블·IPTV를 따로 규율하는 현행 체계가 실제 시장 구조에 맞는지 묻는다. 스카이라이프–HCN 합병이 승인되면 **한 법인이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함께 운영**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두 플랫폼의 점유율을 따로 볼지 합산할지가 쟁점이다. 통합미디어법 논의에도 구체적인 판단 사례가 생긴 셈이다.

가이드라인 아래 5년을 끈 채널 대가 분쟁은 결국 법원으로 갔다. 송출 중단 예정일이 다가오자 CJ ENM은 분쟁조정과 별도로 법원에 임시 판단을 구했다. 조정 신청만으로는 송출 중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내 마련할 활성화 방안에 **대가 산정 기준과 선계약 시행 시점**이 담기지 않으면 딜라이브 건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 11월 26일 송출 중단 예정일 전에 법원 결정이나 조정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호에서 짚는다.

출처: 전자신문(2026.11.19–22) KT스카이라이프–HCN 합병·합병기일 · 전자신문(11.16) 스카이라이프 실적 · 전자신문·뉴시스(11.20) CJ ENM 가처분 · 아이뉴스24(11.21) LG헬로비전 입장 · 전자신문(11.15, 11.19) 선계약 후공급 · korea.kr(11.17) 방미통위 AI 전환 세미나 · Telecompaper(11.20) Ziggo Group · Telecompaper(11.14)·ISPreview(11.19) CMA·CityFibre·TalkTalk

국내 미국 일본 인도 수능 시행(11. 19.) · FCC 의결(11. 19.) · 정령안 의견수렴(~12. 21.) · 지시

2026. 11. 16. – 22.

수능 시험장의 와이파이 운영 중단과 미국 교도소의 밀반입 휴대전화 전파 차단 허용

11월 19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학교·공공 와이파이 운영을 잠시 멈췄다. 같은 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주 교도소가 밀반입 휴대전화의 통신 신호를 제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설비 운영자가 무선 접속을 중단했고, 미국은 차단장치로 특정 구역 안의 휴대전화 통신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에서 전파 차단을 쓰지 않은 것은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 — 교란 대신 와이파이 운영 중단

- **경위**: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수(11. 15.) → 전파탐지기 도입 추진 → 과기정통부 "전파 교란은 제29조 근거 부족"(11. 16.) → 학교·공공 와이파이 임시 운영 중단으로 정리
- **수능 당일(11. 19., 교육부 4교시 기준)**: 위급재난문자 3회(08:30·14:21·14:57)로 49건 적발(31·11·7).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98건, 시험 중 사용 5건(스마트안경·소형카메라 포함). 오전 발표 22대는 중간 집계
- **대통령 지시(11. 17.–18.)**: 국가자격시험 의심 사례·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 **빅테크 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
- 문자 미수신·경보 미작동 제보 있음. 행안부 "일부 구형 3G 단말은 수신 불가" 설명

미국 — '무허가 무선신호' 범주 신설

- **FCC(11. 19.)**: 주 교도소의 밀반입 휴대폰 전파 교란 허용. 위원 전원 찬성, 고메즈 위원은 인근 오작동·장비 암시장 우려로 일부 반대 의견을 붙임. 인가는 '시스템 구성' 단위, 주파수·차단 구역 변경 시 재승인(Inside Towers). 연방법상 재밍 금지의 예외를 '무허가 무선신호' 범주로 만든 구조
- 같은 회의: VoIP 사업자의 미국 전화번호 직접 접근에 국가안보 인증. 대상은 차이나모바일·텔레콤·유니콤. 상호접속·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금지도 검토

본인확인·번호 — 각국의 조임

- **일본(11. 19. 공고, 의견 ~12. 21.)**: 휴대전화 본인확인법 개정 시행령안. 처벌 대상에 **데이터통신 부정이용** 추가(음성 중심 대포폰 규제를 데이터 SIM으로 확대)
- **인도 DoT(11. 16.)**: 메신저 앱의 SIM 바인딩을 24시간마다 확인. 2027. 1. 시행. 전문가들은 "위협 모델을 공개하라"

국내에서 확인할 점

-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의 전파차단장치 허용 범위를 시험장·교정시설로 넓힐지, 넓힌다면 **인가 단위·구역·재승인 요건**을 미국처럼 둘지
- 빅테크 자료 제출 의무를 어느 법(AI기본법·정보통신망법)에 둘지

표 5. 전파 교란·번호 규제 — 이번 주 각국의 수단과 단계

국가	수단	대상·범위	단계
한국	와이파이 운영 중단 + 위급재난문자 3회, 전파탐지기 개발	수능·국가자격시험	시행(11. 19.), 법제화 지시
미국	교도소 전파 교란('무허가 무선신호'), VoIP 번호 안보 인증	주 교도소, 중국 3사	FCC 의결(11. 19., 고메즈 일부 반대)
일본	데이터통신 부정이용 처벌	데이터 SIM	정령안 의견수렴

평가

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해 확인한 전자기기 소지 사례는 49건이었다. 다만 경보음으로 모든 단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일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일부 구형 3G 단말에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TE도 초기 출시 기종 중에는 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는 단말이 있다. 다만 시험 당일 경보가 울리지 않은 기종이 특정된 것은 아니다. 재난 경보를 시험 감독에 활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남는 쟁점이다.

미국 교도소 사례에서 국내가 참고할 대목은 **차단 대상과 구역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다. 시험장이나 교정시설에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려면 인가 단위와 재승인 요건, 인근 주민의 통화와 긴급신고를 보호할 기준까지 함께 정해야 한다. 본인확인·번호 규제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데이터 전용 회선이나 메신저까지 규율을 넓히려면 **막으려는 부정 이용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그 위험을 얼마나 줄이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출처: 국무조정실·korea.kr(2026.11.15) 전파탐지기·비상대책회의 · 전자신문·디지털데일리(11.16) 전파 차단 불가 · 정책브리핑·교육부(11.17–18) 대통령 지시 · 교육부 브리핑·korea.kr(11.19) 수능 적발 49건·98건 · 연합뉴스(11.19) 재난문자 미수신·행안부 설명 · 전자신문(11.19) 오전 22대 · Broadband Breakfast·Inside Towers(11.19–20) FCC 교도소 차단 · 연방관보 91 FR 74165(2026.11.18) · Light Reading(11.20) FCC 중국 통신사 · 総務省(11.19) 본인확인법 정령안 · MediaNama(11.16–19) 인도 SIM 바인딩

기타 소식 ① 국내 정책·시장

국내 소식 9건

통신복지
국내 · 11. 17.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개편 논의 착수. KTOA는 '요금 감면 → AI·콘텐츠 바우처', 정부 재정 중심 분담안 제출

감면 수혜자 상반기 857.4만 명, 감면액은 2021년부터 해마다 1조 원 초과. 현행 '시행령 지정 + 약관 감면'은 사실상 규제에 의한 과세라는 비판. 같은 주 영국 통신사들은 정부 바우처를 요구했고 스페인은 보편서비스 최저 속도를 2027년 100Mbps로 올렸다.

5G SA
국내·일본 · 11. 16.–22.

KT, 12월 5G SA 기업용 업무망 시범사업 착수(SA 지원 단말 약 820만 대). 도코모는 11. 16. 11월 세 번째 전국 SA 장애(10:02~16:56)

SKT·LGU+ 12월 초 SA 상용화. 일본 정보통신심의회는 통신사에 가상화망·클라우드 의존·장애 대응 체계 공시를 요구(11. 12. 답신). 국내 SA 전환 조건 점검에 안정성 지표를 넣을지(제7호)와 이어진다.

보안 예산
국내 · 11. 22.

정부, 'AI 사이버 쉴드돔' 5년 2,968억 원: AI 에이전트가 탐지~대응을 맡는 국산 통합보안관제. 2027년 550억 원

연구 2027. 4.~2031. 12. 예산안 법정기한 12. 2. 같은 주 과기정통부·KISA는 오픈JDK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긴급 점검을 권고했고, 컬리·윙크·폰가비 등 플랫폼 유출이 이어졌다.

이용자 보호
국내 · 11. 16.

방미통위 제49차 위원회: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개편(2027년 평가부터), 현대홈쇼핑 분할 조건부 승인. 휴대폰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10월까지 누적 약 120건

신고 보상금을 최대 40만 원으로 올렸으나 개통 후 14일 기한·악성 신고 걸러내기 개선 요구. 단통법 폐지 뒤 불완전판매 감시를 이용자 신고에 맡긴 구조의 실효성 문제.

통신사 AI
국내 · 11. 20.–22.

SKT, 에이닷을 정부 '모두의 AI' 사업용 '에이닷올'로 전환. 국산 모델 50% 이상 조건에 맞춰 해외 LLM 대화검색을 중단하고 기존 대화 내역은 이전 없이 삭제

정부 지원 조건이 통신사 AI 서비스 설계를 바꾼 사례. 대화 내역 일괄 삭제는 이용자 고지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별건으로 SKT 주가는 Anthropic 상장 뒤 차익실현으로 11. 20. 12.8% 하락했다.

AIDC 전력
국내 · 11. 16.–18.

SKT·효성중공업, GW급 AIDC 전력설비 협력 MOU: 345kV 변전 기자재 사전 협의, 800V 직류배전 실증. KTOA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확대 요구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다음 날 나온 협력. 345kV 직접 수전과 송전망 특별법의 정합성, 직류배전의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수요가 과제.

조직 개편
국내 · 11. 19.–22.

LG유플러스, 2027년 조직개편에서 4개 부문장 전원 교체. 홍범식 대표 유임, LG헬로비전 CEO 7년 만에 교체(김지훈)

해킹 사고 뒤 통신 3사가 보안·네트워크 책임자를 바꾸는 흐름의 하나. LGU+는 카카오모빌리티 보유 볼트업 지분 49.99%를 510억 원에 인수해 100% 자회사화.

우주·발사
국내 · 11. 17.

국방부, NATO 다국적 우주발사협력체계 'STARLIFT' MOU 서명(11개국). 우주항공청, 브레멘 Space Tech Expo에 스타트업 11개사 한국관

발사체·발사장을 함께 쓰는 체계. 발사 위험에 대한 동맹 차원 대응으로, 군 저궤도 위성통신망 배치 계획과 연결된다.

해저케이블
국내·EU · 11. 16.–20.

SK브로드밴드, 해저케이블 SJC2에 양자보안 테스트베드. EU는 발트해 긴급 복구에 950만 유로(복구선 상시 확보), 2차 공모 4,000만 유로 11. 25. 마감

쿼드도 해저케이블 보호 강화에 합의(11. 19.). SKB 분할(의견 마감 11. 30.) 뒤 해저케이블 보호 책임을 어느 법인이 맡는지와 함께 볼 사안.

출처: 전자신문(2026.11.17) KTOA 세미나 · DPL News·디지털전환부(11.17) 스페인 · 전자신문(11.20) KT SA · ケータイWatch(11.16) 도코모 · MediaNama World(11.19) 日 가상화망 공시 · 디지털데일리(11.21) 쉴드돔 · 뉴시스(11.18) 자바 취약점 · korea.kr(11.16) 방미통위 · 전자신문(11.16) 신고제 · 전자신문(11.20) 에이닷올 · 아이뉴스24(11.20) SKT 주가 · 디지털데일리(11.16) SKT-효성 · 전자신문(11.19–22) LGU+ 인사·볼트업 · korea.kr(11.17) 국방부·우주항공청 · Light Reading(11.19) SKB 양자 · EU 디지털전략(11.16) 발트해 · MediaNama World(11.19) 쿼드

기타 소식 ② 해외

해외 소식 8건

재할당·저대역
독일·폴란드·네덜란드 · 11. 17.–19.

獨 BNetzA, 1GHz 이하 저대역을 기존 3사에 우선 배정 최종 결정 → 1&1, EU 집행위에 국가보조 심사 요청. 폴란드 1800MHz 재면허 대가 3.07억 유로. 네덜란드 경쟁당국 "EU DNA가 주파수 보유를 동결할 수 있다"

경매 대신 연장할 때 신규 사업자 접근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EU 법 쟁점이 됐다. 경매 없이 재할당하는 국내 3G·LTE 대역과 제4이통의 저대역 접근 문제에 비교할 만하다. 나이지리아는 미사용 주파수를 12. 31.까지 입증 못 하면 무보상 회수.

보편역무·구리망
미국·스페인 · 11. 13.–20.

FCC, 캘리포니아 동선 철거 규제 선점(11. 13. 의결 2:1, 보도 11. 20.) → AT&T 18.4만 개소 중단 길 열림(실제 중단 2027. 6., CPUC 소송 중). AT&T·Verizon 구리 전화·DSL 중단 개시

'대체 서비스가 있으면 승인'하는 연방 기준이 주 기준을 눌렀다. 국내 PSTN 전환·시내전화 보편역무 조정과 통신복지 개편(07면)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을 어디에 둘지의 비교.

규제기관
미국 · 11. 18.–20.

상원 상무위, 민주당 전원 불참 속 FCC 위원 지명자 Thumann Severs 15:0 통과. 루한 의원 '위증' 주장, 카 위원장 반박. 카 "2029. 1. 20.까지 남겠다"

인준되면 공화 3:민주 1. 여당 몫만 먼저 채우는 방식이라, 방미통위 위원 구성·정족수 논란(제6·7호)과 비교할 만하다.

통신 M&A
캐나다·페루·남아공 · 11. 16.–17.

加 Québecor, TELUS 인수 비공식 제안(약 310억 캐나다달러). TELUS 이사회 "규제 승인 리스크 크다". Millicom, 페루 Entel 17.14억 달러 인수. MTN, 남아공 Telkom 인수 협의 재개

캐나다는 2023년 Rogers–Shaw 승인 때 Québecor를 '제4 사업자'로 키우는 조건을 붙였는데, 그 사업자가 3강 중 하나를 사려는 구조. 국내 M&A 인가 조건 설계에 비교할 만하다.

트래픽
독일·영국 · 11. 19.–21.

GTA VI 출시로 DE-CIX 프랑크푸르트 교환 트래픽 33.03Tbps 사상 최고, VMO2 광대역 피크는 직전 기록 대비 9.4% 상승

단일 콘텐츠가 망 피크를 갈아치운 수치. EU DNA 의회안의 '대규모 트래픽 사업자'(피크 2% 이상) 기준과 국내 망이용대가 논의에 참고할 데이터.

플랫폼 부담금
브라질 · 11. 16.–21.

브라질 하원에 빅테크 총매출 3% 부담금 법안(PLP 308/2026) 발의. 디지털시장법안(PL 4.675/2025) 표결은 11. 27.로 연기

매출 연동 부담금은 국내 망이용대가·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 확대 논의와 같은 계열. 11. 27. 표결은 플랫폼 사전규제 입법의 비교 대상.

AI 인프라
북유럽·중국 · 11. 16.–21.

Telia·Nokia·Nscale 등 'AIGF Northern' 컨소시엄, EU AI 기가팩토리 공모 참여(오울루·이루·발미에라). 차이나모바일, AI 슈퍼노드 5만 2,160장 2차 구매(약 300억 위안 추정)

통신사가 분산형 AI 데이터센터의 축, 또는 국가 연산 인프라 구매 주체가 되는 두 모델. 국내 통신 3사 AIDC 전략과 비교.

우주 통신
일본·미국 · 11. 17.–20.

NTT, 위성 간 광통신·광 지상국 개발과 우주 데이터센터 구상. NTT–ispace 지구–달 통신 제휴. 구글 '우주 데이터센터' Suncatcher, New Glenn으로 2029년 1분기 발사

광 위성 간 링크는 RF 주파수 부족과 간섭을 우회하는 방법. 달 표면 통신은 WRC-27 의제 1.15. 국내 저궤도 위성망 탑재체 로드맵의 참고.

다가오는 일정

- 11. 23.~ Amazon Leo 36기 Ariane 6 발사 · 11. 26. LG헬로비전 CJ ENM 채널 송출 중단 예정(가처분 결정 여부)
- 11. 27. ITU PP-26 폐막 · 브라질 하원 디지털시장법안 표결 · 인도 TRAI AI 지침 의견 마감
- 11. 30.~12. 4. CITEL PCC.II(보고타), 美 WRC-27 입장 설명 · 11. 30. SKB 분할 인가 의견 마감 · 남아공 ICASA 의견 마감
- 12. 1. FCC SpaceX–Grain 800MHz 의견 마감 · 중국–ASEAN 무역협정 발효 · 12. 2. 예산안 법정기한
- 12월 첫째 주 SKT·LGU+ 5G SA 개시 · KT SA 기업망 시범 · 슬라이싱 기준 공개 · SKT 에이닷올 출시
- 12. 9. AIDC 하위법령 공청회 · 12. 15. 英 CMA nexfibre 최종 결정 · 12. 30. AIDC 의견 마감 · 12. 31. 5G SA 재할당 조건 기한

출처: Telecompaper(2026.11.20–21) BNetzA·1&1 · Policy Tracker(11.17–18) 폴란드·네덜란드 · Techpoint Africa(11.18) 나이지리아 · Broadband Breakfast(11.20) FCC 캘리포니아 · Cord Cutters News(11.14) 구리망 · Broadband Breakfast·Inside Towers(11.18–20) Thumann Severs·카 · PR Newswire(11.16) TELUS · Telecompaper(11.16) Millicom·MTN · Telecompaper(11.21) GTA VI · DPL News(11.22) 브라질 · DPL News(11.16) AIGF · C114(11.21) 차이나모바일 · ケータイWatch(11.17)·Light Reading(11.19) NTT · Advanced Television(11.20) Suncatcher